

스승의 가르침 이어 찬란에 찬란을 더하는 화엄성지

22 면면한 법맥이 잇는 화엄사

2009년 9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지리산 화엄계곡에 범종이 울립니다. 긴 떨림으로 산을 에워싸는 종소리는 다섯 번 이어집니다. 행사를 알리는 범종소리입니다. 국보 제 67호로 지정된 각황전에는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이 정연하게 좌정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현당 태현 대종사 2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비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선언에 맞춰 거문고와 대금에 장구 장단에 맞춰 청아한 가락을 토해냅니다. 추모법회를 시작하는 추모주악은 전각 안에 모인 사부대중을 더욱 진중하게 하고 바깥의 대중과 석등, 탑, 나무의 들레단을 어루만집니다.

26년 전 초가를 화엄사 구경암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문도들을 불러 모은 동현당 태현 대종사는 “출가한 첫 마음을 잃지 말고 신심과 원행을 견지하면서 증생제도와 불법증흥을 위해 위법망구로 정진하라”고 부촉했습니다. 그리고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80년 전 너는 누구이며
80년 후 나는 이 누구일까?
하는 서산에 지는데 동녘하늘에 달이 솟는구나,
낭산에 꽃은 빗듯이 웃고 산새는 노래하는구나.

그리고 26년, 가람도 사람도 풍속도 바뀐 지금, 화엄사에서 동현당 태현 대종사를 기리고 부도발에 부도와 탑비를 세우는 거룩한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회는 눈에 보이는 물상들은 세월을 따라 바뀌지만 법의 맥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단정하게 드러내는 장엄한 증명입니다.

일세의 선지식이고 민족의 선구자인 용성진종(龍城辰鐘 1864~1940) 조사의 법을 이은 태현 대종사의 법은 도광 도원 도문 도만 도철 도오 스님 등 40여명의 승속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26년이라는 시간의 다리를 넘어 부도와 탑비를 조성함으로써 면면하게 살아 있는 법의 당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맥(法脈)은 한 순간도 멈추어 없습니다. 구류종생의 맥박은 인연을 따라 생멸할지라도 법맥은 유정과 무정을 초월하고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행사는 물이 흐르듯 푸른 잎에 단풍이 들듯 진행됩니다. 태현 대종사의 제자인 도철 스님이 은사의 행장과 이날 법회와 탑비의 제막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합니다. 죽비에 맞춰 대중들이 입정에 들고 태현 대종사의 육성이 각황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연해진 분위기에 속어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법어사 전개사인 흥교 스님은 태현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사를 올립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



동현당 태현 대종사 26주기추모법회 모습과 부도 및 탑비 제막 장면.



동현당 태현 대종사 원적 26년 만에 부도와 탑비 제막 화엄사 부도발 3단 구조로 말끔하게 정비... 옛 부도와 근래 조성 부도 조화 이뤄 용성조사의 유훈 실현의지 후대로 전하는 기초 마련

님의 법어는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합니다. 원로의 장 종산 스님의 법어는 계승으로 마무리 되는데 태현 대종사의 생애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사나운 마구니 어지럽게 행할 때
(日帝暴亂亂行時)
남악 깊은 곳에 한분의 도인이 계셨으니
(南嶽深處有一仙)
백운을 짙힐 동현당 태현 조사가 그 분이시라
(白雲道伴東軒堂)
법의 깃대 세우시니 온 산중이 보배롭구나
(法幢法臺盡山寶)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의 축사에 이어 법장(法場)이 공양 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가곡 이수자인 한자이 명창이 공양 올리는 법장은 태현 대종사의 오도송과 열반송에 가락을 얹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헌향과 헌화. 우선 태현 대종사의 문도들이 법당 좌측에 마련된 영단에 향을 사워 올립니다. 도문 도철 도업 도림 도오 도홍 도만 도실 도민 도열 스님 등이 향과 삼배를 올립니다. 이어 종단의 원로의 수석부위원장 지혜 대종사 부의장 밀운 대

종사, 정무 혜승 명선 대종사 등이 차례로 향을 사워 올립니다. 종단의 대덕들과 손상좌 재가 제자들, 일본에서 먼 걸음을 달려 온 묘법사 주지 이마니카 게이코 스님과 재가자 두 사람도 향과 꽃을 올립니다. 법회의 마지막 순서는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 부도와 탑비를 제작한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120호 석조각장) 선생과 탑비의 글씨를 쓴 서에게 산민 이웅 선생이 문도대표 도문 스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모법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동현 대종들은 부도와 탑비의 제막을 위해 부도발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화엄사 부도발은 일주문을 지나 절로 오르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흰하늘을 다지고 말끔하게 정비해 누구나 절로 오르는 길에는 부도발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도발은 3단 구조인데 맨 오른쪽은 옛 부도들이고 중간은 동현당 태현 대종사의 부도가 그 왼쪽은 태현 대종사의 사형인 도광 대종사의 부도와 근래 입적한 대덕들의 부도가 자리했습니다.

원로와 문도들이 흰 천에 덮인 부도와 탑비 앞에 섰습니다. 오색의 줄을 잡아당기니 웅장하고 화려한 부도와 탑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반야심경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원로와 문도들을 비롯한 대중들이 향을 사워 올리고 절을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엄숙하고 환희로운 시간, 그렇게 제막식이 마무리되고 대중들은 천천히 절로 돌아 갑니다.

동현당 태현 대종사의 부도는 석종형입니다. 4m 높이의 이 석종은 지공대사의 석종과 연곡사 부도의 보조 부분을 응용해 틀레는 원만하고 상단은 화려한 모양입니다. 사각 지대석에 올려진 팔각의 연꽃 받침이 받치고 있는 석종은 높이에 비해 폭이 넓은 인상 이어서 풍성합니다. 그 위의 보조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극락조 4마리를 사각에 조각한 보문입니다. 그래서 부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풍성함과 단정함 그리고 화려함을 적절히 갖춘 석종입니다.

탑비는 웅장한 귀부아 오색의 탑신 화려한 이수가 조화를 이룬 걸작입니다. 높이 5m의 탑비는 힘차게 고개를 들어 올린 귀부가 주는 위엄이 탑신에 적힌 태현 대종사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표현한 이수 역시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고 근엄한 모습입니다. 이수에 전액의 양식은 갖추지 않았습다.

태현 대종사의 비문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전했습니다. 앞면의 비문은 ‘종설겸통대비원력광도증생동현당태현대선사비명(宗說兼通大悲願力廣度衆生東軒堂太玄大禪師碑銘)’으로 시작됩니다. 선과 교에 통달하고 큰 원력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하신 태현 대종사의 덕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문의 내용은 왼쪽 면으로도 이어지고 뒷면에는 비명이 이어집니다. 비명은 태현 대종사의 일생을 힘

차고 아름다운 운율로 찬탄하고 그 법과 덕행이 현전해 증생구제 원력이 영원히 빛나는 내용입니다. 태현 대종사는 1896년 6월 14일 충남 대덕군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여의 서당에서 유교의 전적들을 공부 했는데 성취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청나라 순치황제의 출가시를 읽다가 ‘백년 3만 6천일이 승가의 한나절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용성진종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득도한 태현 대종사는 화두 참구와 경학 연찬 그리고 은사의 독립운동과 역경불사 전국 제방의 주지 소임 등에 소홀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태현 대종사의 오도에 얽힌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1934년 8월 하동 칠불암 운상선원에서 좌불과 오공정진을 하던 중 입제선사가 나타나 “그대는 그대지도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앉아 있느냐”는 질책과 벽력같은 합을 하는 순간 활연대오 해 계승을 지어 스승께 바쳤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말이 없으니
(無言智異山)
칠불여래 또한 설함이 없네
(七佛亦無說)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도 없으니
(無問是甚麼)
무심이라야 백운과 함께 하리라
(無心親白雲)

계승을 본 스승은 “네가 그러할지나 나 역시 드러하다”며 ‘동헌(東軒)’이라는 당호를 전하며 인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태현 대종사는 스승을 모시고 보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증생계의 시절인연은 버릴 수 없는 현실이어서 스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동지들이 등을 돌리고 일제는 창씨개명을 종용하는 등 어수선한 세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승은 ‘유훈10사목’을 부촉하고 입적했습니다. 홀로 된 제자는 스승의 지시대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이 돼 귀국해 수행과 불사에 전념했습니다. 세수 88세 법랍 66세로 이슬인연을 마감하는 날까지 일마다 지극히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습다.

먼저 깨달은 스승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세상의 꽃으로 필 수 있는 것은 한 순간도 흐트러지거나 멈추지 않고 맥박이 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하고 역대 조사들의 활활발발한 ‘할’과 ‘방’이 유유히 흐르고 선과 교를 초월한 맥박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화엄성지에 근세의 선지식 용성진종조사의 유훈이 태현 대종사와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의 제자들로 변장하며 이어져 만종생의 복전을 이루는 까닭도 법맥의 연속(永續)에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거나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중국 육조사 (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둥 육조사 한국 분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계선종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터)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가 격 :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량 여건을 갖추신 분
- ★문 화 원 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진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연 락 처 :

- 육조사 한국 분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033)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02)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분찰 용화사 방장 석 언과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승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 10월 11일 중국 광둥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 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 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 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분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흥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홍사 육공불법점인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선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